

라 (출18:7-12)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sup>7</sup>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sup>8</sup>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sup>9</sup>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sup>10</sup>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sup>11</sup>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sup>12</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전 시간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말씀은 내적 선과 진리가 외적 선과 진리 안으로 들어와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 천국의 비밀 8603번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차례로 나오는 파생물이며 연속물이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모든 것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즉 사람 내면에 있는 선과 진리는 삶에 속한 외적인 것들 안으로 질서 있게 흘러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파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18:7-12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러니까 삶의 모든 행위는 외적인 진리, 또는 선인데 그 안에는 내적 진리와 선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603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ach and all things in universal nature come forth from interior things in order, being derivations and successions.*

이는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에 관한 주석 중 ‘모세와 아론과 훌’(and Moses, Aaron, and Hur)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난 11월 하순부터 시작, 매일 만나는 이 모든 설교가, 그것이 오늘처럼 출애굽기이든, 아니면 누가복음이든, 한결같이 늘 등장, 마주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외적’, 혹은 ‘결’, ‘속’, 또는 ‘선과 진리’나 ‘천적, 영적, 자연적’ 등 보통 일반적인 개

신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쉬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낯선 용어들이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과연 설교인지... 아니면 무슨 철학 강의인지 싶기도 할 정도이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통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팬찮은 설교라면 십자가 복음을 주제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화들을 들어가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잘 차려진 좋은 설교 콘텐츠여야 하지 않나요?

저 역시 개신교 목사로서 오랜 시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지금은 나름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것은 성경 말씀은 철저히 그 목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곳 생활과 언어, 문화와 정서 등으로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용어가 낯설지만 천국 구성원들에겐 마치 그 나라 모국어처럼 친숙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들 들면, 타국에 살러 가기 전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문화를 부지런히 익혀야 하듯 그렇게 천국 언어와 실상에 대해 배우는 것이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라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상 생활에 맞게 길들여져 온 모든 것을 앞으로는 천국 생활에 맞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되니 어려우시더라도 주님의 빛 비추심과 도우심을 구하시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천국 입국은 입국 전 이미 천국 생활에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과는 또 다른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여기 이순철 목사님처럼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여 부드럽고 맛있는 이유식으로 재탄생시켜야 하지요. 아,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으며, 바로 이 대목에서 저의 역량의 한계에 직면, 늘 주님께 엎드리게 되며, 빛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설교라는 영역에서도 우리 주님은 모범이시며 본 되십니다. 이런 쉽지 않은 천국 본성 이야기를 주님은 그러나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감동, 감격하며 들을 수 있도록 각종 비유로 풀어주셨으니깐요! 저도 참 그

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네, 그럼 다시 계속해서, 삶의 모든 행위는 외적 진리, 또는 선인데 그 안에는 내적 진리와 선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선과 진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들은 사람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가 완성됩니다.

※ 즉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며, 이런 준비가 쌓여 누적, 최종적으로는 사후 천국 생활에 합당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이 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을 완전하게

출18:7-12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드러낼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자신, 물질, 육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모진 시험을 이기시고 육신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감각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당신의 가장 외적인 것 안에 가장 내적인 것을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적 능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에 담길 때 가장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등차, 등급이 다른 진리를 표상하는 모세와 아론, 훌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나, 등차가 다른 선을 표상하는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모두 내적 진리가 외적 진리 안으로, 그리고 내적 선이 외적 선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말씀의 내적 의미, 곧 속뜻이라 하며, 이런 건 말씀을 겉으로만 읽어서는, 즉 그 속 뜻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아시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sup>7</sup>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기서 모세는 주님이 주시는 내적 진리(*Divine truth proceeding immediately from the Lord*)를,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신성한 선(*the Divine good*)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진리와 선이 만나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나가고요, 그다음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고, 끝에 가서는 장인과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나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적용할 때 선을 위해 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적용할 때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의 평판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선을 위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인들 가운데는 명예나 이익을 좇지는 않지만,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발 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위해 진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무작정 이웃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가 기록된 책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읽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면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들이 진리를 받

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위해 진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모세가 선인 이드로를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 선을 영접하는 것은 순수한 진리, 또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에게 절을 합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절을 하는 것은, 진리가 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와 선이 마음속에서 서로 결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치로 따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한 일은 진리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하면 안 돼!”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주님은 다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는가? 그러니 용서해라.”라고 말합니다.

출18:7-12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그 두 가지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명명백백하게 옳지 않은 일을 했으니 다음에는 철저히 거리를 뒤희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또는 “잘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잘못을 덮어 줄 때 진리는 선에게 복종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추고 장막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장인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선과 진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남녀가 입을 맞추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장막은 거룩한 사랑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고대교회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가장이 가족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장막이 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장막은 거룩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추고,

장막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은, 선과 진리가 만나서 거룩한 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선과 진리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장막에 들어간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깨달아 안다는 뜻이고요. “모세가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드로에게 말한다고 했을까요? 모세, 즉 진리 혼자서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이드로로 표상되는 선과 만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날 때, 그때 우리는 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선과 결합한 진리의 밝은 빛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내적 싸움의 의미들과 그 싸움에서 이긴 것, 그리고 그것이 모두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용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겼을 때, 그것이 주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 내가 이번 싸움에서는 참 쉽게 이겼는데 그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때, 그것을 마음 깊이 절실하게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할 때, 즉 모세가 이드로와 만나는 때입니다. 그것을 말씀에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애굽 사람의 내적 의미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즉 영적 교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짓들을 주께서 흩어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거짓들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종류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또는 진리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자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요. 마치 진리를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자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며, 그

출18:7-12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러므로 주님께서 그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좀 더 들어 볼까요? 전에는 건전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무슨 액션, 범죄 영화라든지, 무슨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웹툰 만화라든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제법 자랐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과 바로를 쫓아버리셨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영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말한 것은, 그들이 길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길에서 당한 고난이란 신앙인들이 당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광야 길이고, 그러므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할 때 선과 결합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시험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때 그런 시험을 나에게 허용하셨는지, 그리고 아직은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계속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을 모든 도전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이며,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능력이 모두 주님의 신적 인성(*the Divine Human*)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의 신적 인성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교우님들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신적 인성은 거룩한 사람이신 동시에 신(神)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적 인성이신 주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적 인성이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누어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 인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한 분이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아버지 따로 믿고 아들 따로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신적 인성이 되신 이유는, 여호와와 신성이 인간에게 직접 흘러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태양보다도 무한히 뜨거우시고 무한히 밝으신 주님을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신성 그 자체로 직접 오시는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지옥과 싸워 이기시고 육신의 감각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신성이 주님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가장 바깥쪽 감각에까지 흘러들어와 빈틈없이 채우심으로써 주님의 인성과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이 완

전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사람인 동시에 신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시니까요! 그 주님이 바로 신적 인성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지옥에서 오는 온갖 거짓과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나오는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동안 사정을 말하는 것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sup>9</sup>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출18:7-12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있는 신성한 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드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업에 성공, 돈을 많이 벌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적 희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런 내적 희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서 이드로는 말합니다.

<sup>10</sup>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sup>11</sup>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모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고백은 진리로 고백한 것이지, 선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고백하는 것과 선으로 고백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진리로 고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백할 때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를 내려놓는다 해도 진짜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sup>12</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면,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고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제사, 곧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풍습은 히브리 교회, 즉 노아교회와 유대교회 사이, 히브리 교회가 잠깐 있었는데, 그 히브리 교회 때부터 이런 예배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예배를 이런 희생 제사로 드리는 족속들을 히브리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희생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제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번제와 희생제물이 표상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 즉 주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은 믿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제물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당한 시험의 의미들을 알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긴 것이 모두 주님의 신적 인성의 능력이란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그때 주님께 진정한 예배, 즉 인애의 삶, 체어리티(*charity*)의 삶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드로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드로가 가지고 왔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선을 바탕으로 이루

출18:7-12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삶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신성한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무엇입니까? 아론은 교회의 교리를 뜻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진리 가운데서도 으뜸 되는 진리를 뜻합니다. 장로이니까요. 그러면 으뜸이 되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 으뜸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떡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와 그 바탕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생명 안에 기록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에게는 각자의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우리 것이 됩니다. 어떨 때는 진리를 실천했다가 어떨 때는 실천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때부터는 늘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각자의 의지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가 생명책, 즉 의지에 기록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아론의 일행이 떡을 먹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했을까요? 진리와 하나가 된 선을 내면에 있는 생명에 기록하시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드로가 가져다주는 희생의 떡을 매일 주님 앞에서 먹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진리가 결합, 하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와 선은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의 서로 결합해서 생명이 되지 않으

## ‘이드로가 제물을 가지고 오다’

면 우리는 순수하게 인애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만 가지고는 인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가 궤도 위를 달리는 차량이라면 선은 차량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엔진이 뜨겁게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차량이 궤도를 달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선은 반드시 결합,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받은 선과 진리를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 너희 생명, 즉 의지와 애정 안에 그것을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는 진리를 행할 때 선을 위해 행하라고 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위해 행하지 말고, 선 자체를 위해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서로 다툰 때 언제나 선의 편에 서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철저하게 선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리와 선은 하나가 되

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진리와 선이 결합, 하나 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5</sup>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sup>6</sup>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sup>7</sup>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37:5-7)

아멘

원본

2016-09-25(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28(D4)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